“대행 선사 ‘뜻으로 푼 천수경’은 마음수행 지침서”

한마음과학원 심포지엄서 청고 스님 논문 발표



한마음과학원은 6월 29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한국과 베트남 불교’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은 심포지엄에 앞서 진행된 기념촬영 모습.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행 선사가 한글로 풀어낸 〈뜻으로 푼 천수경〉은 언뜻 보기에는 독송용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수행을 위한 매우 뛰어난 지침서이다.”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이 마음수행과 영적 성장을 위한 지침서로 손색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마음국제문화원 실장 청고 스님은 6월 29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열린 한마음과학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대행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가이드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청고 스님에 따르면 〈천수경〉은 서기 700년 이후부터 한국불교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신라 의상대사는 〈천수경〉의 핵심인 ‘대비주다라니(大悲呪陀羅尼)’를 독송해야 한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근대적인 형태의 〈천수경〉 독송본은 1716년경이며, 〈천수경〉의 최초 한글본은 1977년 혹은 1978년이 대행 선사에 의해서 출간됐다. “20세기 들어 〈천수경〉에 대한 여러 한글 주석서는 출간됐으나 한글로 번역된 독송용 〈천수경〉이 출간된 적은 없었다”는 게 청고 스님의 설명이다.

청고 스님은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은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의 시각에서 한글 번역이 이뤄졌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따라서 〈뜻으로 푼 천수경〉은 언제나 안으로 내면을 주시하게 만들며 ‘선(禪)’의 풍미를 느낄 수 있게 해 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고 스님은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의 특징으로 ‘내면’으로 향하고 있는 시점과 모든 문구들이 ‘일인칭 화법’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꼽았다.

실제, 〈뜻으로 푼 천수경〉은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이 우리 마음 속 본래 있는 한마음의 나툼으로 설명된다.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향하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일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일인칭 화법’ 구성에 대해 청고 스님은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은 거의 모든 문구들이 ‘나의’ 혹은 ‘나’라는 주어로 시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스스로가 인지와 통제의 주체(主體)로서의 자신 즉, 주인의식을 느끼게 해준다”고 설명하며 “이는 인지행동치료의 원리로부터 발전된 현대의 심리치료 방식과 유사한 자기진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 현실(psychic reality)’이라는 오래된 심리학적 개념과도 유사점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 역시 〈천수경〉의 구절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렌즈가 될 수 있다”며 “〈천수경〉의 구절들이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물론이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상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고 스님은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이 우리의 삶의 최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스님은 “〈뜻으로 푼 천수경〉에서 지옥 같은 상황을 극복하는 법을 설해주는 문구 중 ‘만약에 축생의 마음 일으킨다면, 스스로 큰 지혜로 둘 아닌 도리를 알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축생의 마음’을 다스리는 대처법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의 구절들은 일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한마음의 전체 자리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향상시켜주는 가이드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란 일인칭 화법으로 서술
인지행동치료 자기진술 유사
‘베트남 불교’ 전반현황 발표
무아–일심–한마음 연계 조명

현대에 부흥한 베트남 불교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한 한국과 베트남 불교’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베트남 불교’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논문도 발표됐다. 호앙 티 란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종교와 신앙 연구소장은 ‘베트남 불교’ 발제를 통해 베트남 불교 전래와 역사, 현황 등에 대해서 소개했다.

호앙 티 란 연구소장에 따르면 베트남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기원 후 2세기경이며, 11~14세기 베트남 봉건시대에 가장 많이 번성했다. 하지만 17~19세기 가톨릭 도입과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거치며 베트남 불교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1930년부터 베트남 불교는 전국적인 부흥운동을 전개했으며, 1981년에는 불교통일대회를 열어 9개 불교단체를 합병했다. 이때 결성된 베트남불교총회는 지금까지 베트남 불교의 유일한 합법적인 단체다.

현재 불교는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진 종교로 1400만 명의 신자와 5만 3491명의 비구·비구니스님이 수행하고 있다. 종파는 북방불교, 상좌부 불교, 탁발 불교로 나눠져 있다.

베트남 불교계는 사회 실천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베트남 승가는 전국에 1000여 개 이상의 자비 교실과 64개 장애 아동 및 고아 양육시설, 10개의 무료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치민·하이퐁·다낭 등의 불교 사찰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 상담 및 돌봄센터를 설립·운영 중이다.

호앙 티 란 연구소장은 “재해구호와 장학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의 사회공헌 활동에 베트남 불교 공동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비구·비구니스님들이 방역 최전선에서 봉사했고, 수십만 톤의 음식과 의료품을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고위 불교계 인사와 신도들이 빚어내는 문제와 일부 스님들의 도덕적 품행 저하 문제 등은 현재 베트남 불교가 해결할 숙제라고 꼬집었다.

“한마음사상, 무아–일심 잘 드러내”

또한,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는 ‘일심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일심이 무아의 부정이 아닌 완성임을 분명히 하고, 일심의 특징을 본유성·전체성·자각성·보편성의 관점서 밝혔다. 나아가 대행 선사가 강조한 한마음사상과도 연결됨을 살폈다.

한자경 교수는 “‘무아’는 일체가 인연 따라 만들어짐을 뜻하고, ‘일심’은 그렇게 인연 따라 일체를 만드는 자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뜻한다”면서 “따라서 일심은 무아의 부정이 아니라 무아의 완성이다. 중생 안의 본래 마음인 일심을 깨닫지 않고는 무아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체를 만들되 그 자체는 만들어진 것이 아닌 불생불멸의 일심이 바로 모든 중생의 본심이고 여래장이며, 불성이고 본래면목”임을 밝힌 한자경 교수는 “대행 선사는 이런 중생 안의 본성 내지 불성을 ‘한마음’이라고 칭했다”면서 ‘한마음은 누구의 것도 아니면서 모든 생명의 것이다. 일체 중생의 마음인 것’이라는 대행 선사의 법문 속에서 일심의 보편성을 찾았다.

이에 대해 한자경 교수는 “대행 선사의 한마음사상이 무아를 완성하는 대승 일심의 본유성과 자각성, 전체성과 보편성을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언어로 잘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발표 이후에는 김재영 교수(서강대)를 좌장으로 혜유 스님(독일 한마음아카데미 연구실장), 윤종갑 교수(동아대), 김원명 교수(한국외대)를 토론자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혜유 스님은 토론을 통해 “틱낙한 스님은 참여불교와 인터빙(Interbeing)을 주창하며 불교가 일상생활에서 깨어있음을 그리고 모든 것이 서로 어우러져 있음을 알려줬다. 이러한 틱낙한 스님의 활동은 동시대의 한국의 선지식 대행 스님이 연상된다”면서 “틱낙한 스님과 대행 스님은 많은 사람에게 참나의 발견, 내면의 평화와 서로 연결된 한마음의 도리로 세계평화를 이끈 공통점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심포지엄에서 앞서 개회식이 진행됐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한마음과학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8월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초청으로 혜유 스님과 한마음과학원 관계자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했고, 당시 호앙 티 란 교수가 양 기관의 학술 교류를 제안한 것에 따라 이번 초청이 이뤄졌다”면서 “국제교류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이로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처음 열린 한마음과학원 심포지엄은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사업 일환으로, ‘한마음과학의 세계화’를 위해 진행된다.

이화행 한마음과학원 부원장은 “한마음과학원과 베트남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종교와 신앙 연구소는 이번 학술교류를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불교에 대한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다”면서 “2026년이면 한마음과학원이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한마음과학의 체계화, 세계화, 생활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솔로 대학생들 “템플스테이로 ‘절사친’ 됐어요”

〈절+사람+친구〉

봉은사 ‘대학생도 절로’ 진행
‘친구 사귀기’ 초점 프로그램
6시간 활동… 최종 1쌍 성사
‘귀한 인연’ 시즌2 기대 이어



6월 30일 서울 봉은사 구생원에서 진행된 ‘대학생도 절로, 봉은시그널’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는 참가자들. 사진제공=봉은사 기획국

6월 30일 오전 10시, 장마를 재촉하는 빗속에도 서울 봉은사 구생원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가 준비한 ‘대학생도 절로, 봉은시그널’에 참여하기 위한 청춘남녀 20여 명이 모여들은 것.

‘대학생도 절로, 봉은시그널’은 봉은사 대학생법회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나는 절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대학생 대상 인연 맺기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나는 절로’ 프로그램이 저출산 시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인연을 맺어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친구 사귀기’, 즉 ‘절(사찰)에 있는 사람 친구 만들기’에 초점을 맞춰 당일형 템플스테이로 만들어졌다.

봉은사 구생원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 옷을 입고 마주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제법’ ‘무아’ ‘바라밀’ 등의 불교 용어로 된 이름표를 각자 달고 사찰 예절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며 긴장을 풀어갔다.

어색한 분위기는 곧 봉은사 대학생법회 지도법사 명진 스님의 인사말로 해소됐다. 명진 스님은 봉은시그널의 첫 주인공이 된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연기법(인연법)이다. 보통 사람은 인연을 만나면 고민하다 놓치지만 현명한 사람은 인연을 빠르게 받아간다”며 “오늘 친구가 되든, 커플이 되든, 좋은 인연을 맺어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1차 미션 ‘돌고 도는 인사’가 시작됐다. 여성은 고정석에 앉아있고 남성이 7분마다 자리를 바꾸며 1:1로 인사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무슨 전공이세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혹시 야구 보세요?”와 같이 서로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취업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라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의 진심 어린 고민 나눔도 있었다. 첫 미션은 마음에 드는 참가자 이름을 적어 짝꿍을 맺으며 마무리됐다.

1차 미션에서 맺어진 짝꿍들은 2차 미션인 ‘빙고 3줄 완성하기’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봉은사 북극보전에서 삼배 후 인증샷 찍기, 짝꿍과 함께 초공양 올리는 인증샷 찍기 등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봉은사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봉은사 마스코트인 골든리트리버 ‘천수’와 함께 사진 찍는 활동은 참가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3차 미션은 ‘퀴즈 게임’으로 참가자들은 짝꿍과 함께 불교 상식, 일반상식 문제를 풀었다. “너무 어렵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라며 참가자들은 애써 문제를 맞히려 노력했다. 열띤 토론이 오갔던 퀴즈 시간이 지나고 참가자들은 마침내 최종 선택의 시간을 가졌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6시간의 프로그램에서 한 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커플이 된 자리(남)와 선녀(여)는 “봉은사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며 즐거운 추억을 가져간다”고 짧은 소감을 말했다. 명진 스님은 최종 커플이 된 두 사람에게 선물을 주며 “귀한 인연 소중히 여겨 오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절에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면서 “안전지대인 사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더 안심하고 즐길 수 있었다. 시즌2도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며 재회를 기대했다.

‘대학생도 절로, 봉은시그널’을 처음 기획한 양서원 봉은사 대학생법회 총무는 “불교를 접할 기회가 없던 대학생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싶었다”며 “불교가 재미없는 종교가 아닌, MZ세대가 즐길 수 있는 종교임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가령 수습기자


보물로 지정 예고된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 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

불갑사 지장보살상·시왕상 보물된다

국가유산청 7월 3일 지정예고

영광 불갑사 지장보살상·시왕상 등 조선시대 불상들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 ‘해남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 4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7월 3일 밝혔다.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은 수조각승 무염(無染)을 비롯해 정현(正玄), 해심(海心) 등의 조각승들이 1654년(조선 효종 5) 완성해 불갑사 명부전에 봉안한 것이다. 발원문을 통해 지장보살, 무독귀왕, 도명존자, 시왕상 등 모두 27구의 존상이 제작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제작 당시의 완전한 형태 그대로 전하여 조선 후기 불교 신앙과 조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국가유산청은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은 무염의 작풍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해심의 독자적인 양식적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며 “무염 및 그의 유파 형성과 전승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남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海南 隱跡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은 둥글고 양감 있는 얼굴, 사실적인 인체 비례, 추켜세운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감싸 쥔 지권인의 양식 등 신라 9세기 대의 시대 양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이 불상은 금동불에서 철불로 전환되는 시점에 제작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철불상으로 판단된다”면서 “통상, 철불은 분할주조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조 흔적이 발생하는데, 이 불상은 이러한 주조 흔적을 최소한으로 나타내고자 수직으로 내려오는 옷깃을 따라 틀을 이어 붙이는 등 여러 측면에서 기술적인 고려가 세심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신중일 기자